

“버티면 바보”… 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치솟는 비용·줄어드는 수익 ‘이중고’에 시달려… 구조적 문제 해결책 필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은 후 겨우 대충로 연명하며 버텼던 소상공인들이 값이아할 원금과 이자가 쌓이면서 다시 한번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의 대출 상환 유예 조치에 끝나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특히, 꾸준히 빚을 갚아온 성실 납부자들은 오히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며 이자를 갚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자를 내지 못한 자영업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이자를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한 자영업자는 혜택이 없어 버티면 바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대출 상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기세, 가스비, 임대료 등 고정 지출은 계속 오르는 반면, 매일매일 장사를 해서 실제 손에 쥐는 수익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 덕진구에서 장사를 하는 한 자영업자는 “가게세 165만 원에 전기세만 70~80만 원씩 나간다”고 토로하며, “12시간 넘게 일해도 일하는 종업원보다 못 벌 때가 많다”고 하며 “어

떻게 해야할 지 대책을 찾지 못해 막연하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배달 플랫폼 수수료는 소상공인들의 수익을 갉아먹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프랜차이즈 지점을 열고 운영하는 데 배달앱 수수료와 분사 수수료 등을 떼고 나면 음식 가격의 25~30% 정도만 남는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설명이다.

이 자영업자는 “1년여 전부터 배달 플랫폼들이 배달 시스템을 독점하면서 분사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며, 결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분사에 종속되는 ‘물’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 이전에는 배달 수수료도 벌여보고자 프랜차이즈 지점에서 사장도 나서고 직원도 나서서 가까운 곳을 직접 배달하여 수익을 조금이라도 올렸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분사에서 배민, 요기요, 쿠팡 등의 배달앱과 독점을 하여 가까운 곳으로 직접 음식 주문 오더를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연체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자 감면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자영업자들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다른 자영업자는 “4~5개월 연체한 사람들은 구제를 해 주는데, 죽을 힘을 다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우리는 혜택이 하나도 없다”며 “빚을 갚으려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 보는 상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제도에 상담을 신청하기도 하지만 기존 대출이 많거나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다는 이유로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자영업자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찾아갔지만, 기존에 대출을 성실하게 갚아와서 오히려 지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현행 지원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음식점 프랜차이즈 점을 경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배달 플랫폼이나 프랜차이즈 분사의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가 프랜차이즈 분사를

규제할 경우, 분사들은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프랜차이즈 지점을 경영하는 또다른 자영업자는 “프랜차이즈 분사는 망할 일이 없다. 인테리어 비용, 홍보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가맹점 수를 늘리는 가지치기만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맹점주들은 분사의 부담한 요구에 대항하다가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기간에도 어렵게 이를 극복하며 허리 역할을 해왔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또다시 파업 위기와 경영압박의 거센 파고를 맞고 있다.

대출 상환과 높아지는 비용 그리고 불평등한 시장 구조 속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오늘도 한계까지 내몰리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진정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만호 기자·오상근 기자



전북 전주가 가맥(가게맥주) 문화의 원조이자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민 술 문화’ 가맥, 전주 대표 축제로 ‘우뚛

1970년대 구멍가게 출발,전주가맥축제로 신선함과 전통 선보여

전북 전주가 ‘가맥(가게맥주)’ 문화의 원조이자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 동네 슈퍼와 잡화점에서 시작된 간단한 병맥주와 안주 판매 문화가, 2025년 현재 ‘전주가맥축제’라는 대규모 행사로 발전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가맥의 시초는 전주시 서노송동 일대의 ‘평화주택’을 비롯해 ‘전일슈퍼’ 등에서 비롯됐다. 당시 주민들은 냉장고에서 직접 병맥주를 꺼내 먹고, 황태구이, 감오징어, 땅콩 등 소박한 안주와 함께 퇴근 길이나 야간 근무 후 가볍게 한잔하는 문화를 만들었다.

‘가게에서 맥주를 마신다’는 뜻

의 가맥은 전국 여러 도시에서 유사한 술 문화가 있지만, 전주만이 이를 ‘가맥’이라는 고유명사로 정착시키고 오랜 시간 유지해 왔다.

특히 2015년부터 하이트진로가 특별 후원사로 참여한 전주가맥축제는 전주공장에서 당일 생산한 신선한 ‘테라’를 현장에서 바로 맛볼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며 지역 축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았다.

참고로 1993년 전주공장에서 하이트진로의 맥주 브랜드인 하이트 맥주가 생산되면서 철용성처럼 변하지 않은 맥주시장의 판도가 바뀌었다. 전주공장은 하이트진로의 폭발적인 성장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오상근 기자

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부

노동인력 현안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동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노동인력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오기용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영석 서울경인메이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권기 한국가방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최경진 대한엘리베이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윤중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연경 한국 CCTV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우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준 합리화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주52시간제 경직성 완화 △주45일제 신중한 도입 △일몰제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 중심의 고용정책 검토 등 중소기업계 핵심 노동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중기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오상근 기자

고품질 로열젤리 생산 꿀벌 ‘젤리킹’ 원원여왕벌 공급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지자체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5개소에 젤리킹 원원여왕벌 공급

농촌진흥청은 12일 지자체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꿀벌증식장) 5개소(충남, 전북, 전남, 전북, 전남)에, 전북자치도, 전남농업기술원, 예천군, 진도군농업기술센터)에 고품질 로열젤리 생산 꿀벌품종인 ‘젤리킹’의 원원여왕벌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로열젤리는 7~10일 된 일벌의 인두선에서 분비되는 유백색의 크림 형태 물질, pH 3.4~4.5의 강한 산성을 띠는 가용성 에스테르 지방산의 일종으로

여왕벌의 먹이로 알려져 있다.

젤리킹은 2018년 농촌진흥청이 선발한 우수 꿀벌품종을 교배해 개발했다. 다년간 생산력 검증 시험과 지역 적응 시험으로 효과를 검증한 후 고품질 로열젤리 생산 꿀벌품종으로 등록했다.

이번에 국립농업과학원이 공급하는 젤리킹은 모계, 부계 82마리 원원여왕벌이다. 원원여왕벌(기본 여왕벌→원원여왕벌→원원여왕벌→보급 여왕벌)은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기본 여왕벌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1차로 꿀벌위도 격리육종장에서 증식한 것이다.

지역별로 충남 모계 5·부계 5, 전북 특별자치도 모계 10·부계 20, 전남 모계 8·부계 10, 예천 모계 15·부계 5마리, 진도 모계 2·부계 20마리.

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꿀벌 우수품종을 지속해서 증식·보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중기중앙회, 한-베 중소기업간 투자협력·기술교류 지원 확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과학기술협력 세미나’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경험과 제조혁신 역량이 베트남 첨단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이전과 합작투자 등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베트남 과학기술협력 세미나는 또 럽 베트남 당 서기관 방한을 계기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베트남 과학기술부 및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주관한 행사로 연구개발 혁신 경험 공유 및 한-베트남간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김기문 중소

기업중앙회장, △배경훈 과기부장관, △최영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최영삼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 등이 참석했으며, 베트남에서는 △도 럽 당 서기관, △응우옌 만 흥 과기부장관, △부 호 주한베트남대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상근 기자

중기부, 글로벌 선도 연구기관과 공동R&D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0일 (美)퍼듀대학교, (獨)프라운호퍼 연구소, (獨)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3개 글로벌 선도 연구기관과 공동R&D를 수행하는 2025년 글로벌협력형R&D 1단계 사전연구 과제 총 52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협력형R&D는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R&D 프로그램으로, 중소벤처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美 5대 공과대학을 보유한 퍼듀대학교, 유럽 최대 응용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연구소, 기업수요 기반 예로 해결 R&D를 지원하는 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공동 R&D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원활한 글로벌R&D 수요 매칭을 위해, 각 글로벌 연구기관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공동R&D 추진 필요성이 높

은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제안서(RFP)를 도출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R&D 수요와 각 기관의 협력 가능성 의견 등을 종합, 평가하여 AI·바이오·반도체 등 10대 초격차 분야 총 52개(퍼듀대학교(17개), 프라운호퍼 연구소(29개), 슈타인바이스 재단(6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들 선정 과제는 약 6개월간의 1단계 사전연구 과정을 통해 해외 협력기관과의 전략적 협력계획 수립, 연구개발 로드맵 및 단계별 개발목표 설정 등 세부 연구과제 기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경쟁 방식을 통해 사전연구 과정에서 우수성과 협력 적합성이 입증된 과제를 대상으로 2단계 본연구를 2026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글로벌협력R&D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IP 등 법률적 이슈 해소 및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5일 법무법인 광장 등 IP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글로벌협력형 R&D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오상근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